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복지관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개관

## 자립·재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예정

순창군의 기대와 희망이 담긴 장애인복지관이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복지관 광장에서 500여명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관식은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인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하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들은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순창군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된 이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1,318㎡ 규모로 재활운동실, 상담실, 식당,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은 순창군에서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음껏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

는 공간이 부족했던 아쉬움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활발히 사회에 참여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울러,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넘어서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이 도내 다른 장애인복지관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을 했지만,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사랑으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치즈테마파크 "스포츠영상체험 즐겨요"

## 영상체험관 등 7개 시설 갖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한국관광의 별이자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있는 스포츠영상체험관이 또 다른 즐거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치즈를 테마로 조성된 체험관광지로 해마다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관광명소로 '2023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군은 최근 치즈테마파크에 있던 기존 4D영상관을 스포츠영상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 스크린 야구 등 7가지 스포츠체험 시설(△축구 △야구 △양궁 △볼링 △스키 △스노보드 △VR놀이 기구)과 세계적 미디어아트존을 마련했다. 스포츠영상체험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위치한 스포츠영상체험관

(사진=임실군청 제공)

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곳을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5월 가정의달 행사와 10월 임실N치즈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즐거거리 및 체험거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영상체험관 맞은 편에는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이 있어 스포츠체험도 즐기고, 치즈의 모든 것까지 알 수 있는 연계관광도 가능하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은故지정환 신부로부터 시작된 임실치즈 산업의 발전상을 전달하고 현재 관내 유가공업체의 현황, 치즈 제조·숙성 과정을 최신 전시기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치즈역사의 종합박물관이다.

이곳은 치즈홀과 전시실, 치즈 제조·숙성실, 치즈전문판매샵 등으로 구성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제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 24개 자원봉사단체, 개인 등 자원봉사자 1000여명 참여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남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제94회 순창제 성공의 포문을 여는 디딤돌이 될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순창제 기간에 동참할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자원봉사 단장 위촉과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순창제를 앞둔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제94회 순창제 자원봉사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된 고명철 단장과 이미숙 부단장은 "순창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열정을 갖고 봉사하여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자"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남원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는 만큼 순창제의 성공적 개최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에 임해주시길"을 당부했다.

한편 5월 10일부터 7일간 개최되는 이번 순창제에는 24개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등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관광 활성화 MOU

순창군은 지난 12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 및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두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윤재훈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도 연계 상품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철도 관광상품의 판매 및 홍보, 그리고 순창군 연계 철도 관광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됐다.



이울러,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순창군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관광 상품 개발, 지역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23일까지

임실군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23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 중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군이 지정·관리하는 업소다. 모집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의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소이다. 단,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

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인근 상권 평균 미만의 가격, 위생 및 청결 등의 심사 기준을 고려해 평가 후 5월 중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창 부착, 가게 운영에 필요한 위생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고추 지주대 지원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고추재배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고추지주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추 지주대는 고추가 자라는 동안 쓰러짐을 방지하고 성장을 돕는 필수 농자재로,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영농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순창군은 고추장과 같은 장류제품에서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순창 지역 내 고추 재배 면적은 약 180ha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넓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추 재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고추 지주대 지원 사업은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2024년 애향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가 지난 12일, 학생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진행했다.

애향장학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4명을 포함한 124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애향장학생에게는 총 2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대학생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애향장학생 선발은 당초 계획보다 4명이 증원되어 역대 최대규모인 총 124명을 선발하여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재)임실군애향장학회는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올해 2024년까지 2,104명 학생에게 3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애향장학금은 매년 2월경 신청 접수받아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3월경 최종 선정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